



연오랑 세오녀 설화의 연구

환동해 문화권의 설정을 위한 고찰을 중심으로

Setting East Sea Rim Culture Bloc and Narrative of Yeon-o-rang, and Saeo-nyeo

저자 (Authors) 김화경
Kim, Hwa-Kyung

출처 (Source) [인문연구 \(62\)](#), 2011.8, 59-84(26 pages)
[Journal of the Humanities \(62\)](#), 2011.8, 59-84(26 pages)

발행처 (Publisher)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the Humanit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894399>

APA Style 김화경 (2011). 연오랑 세오녀 설화의 연구. 인문연구(62), 59-8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10 15:4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연오랑 세오녀 설화의 연구*

- 환동해 문화권의 설정을 위한 고찰을 중심으로 -

김화경**

〈차 례〉

1. 머리말
2. 한·일 간의 관련설화들과 동해문화권
3. 연오랑 세오녀 설화와 일본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동해안과 일본의 서해안 사이에 존재하는 동해 중심의 문화권을 설정하여, 지난 날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문화 교류의 한 단면을 고찰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찰의 대상으로 한 것은 포항 일대에 전해지고 있는 ‘연오랑 세오녀 설화’이었으나, 이와 함께 일본에서 전해지는 ‘쓰누가야라시토 설화’와 ‘아메노히보코 설화’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 본고는 2010년 10월 8일 ‘연오랑 세오녀 연구소’에서 개최한 「고대 환동해 교류와 연오랑 세오녀, 한·일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한 원고를 보완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그리하여 얻은 성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환동해 문화권의 설정을 위해서 우선 한국의 남부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 일대에 ‘당일우귀(當日于歸)’라는 공통적인 혼속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이들 두 지역이 서로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한다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일본 호쿠리쿠 지방의 문헌설화인 ‘가가 지방의 뱀과 지네가 싸우는 섬에 간 사람, 뱀을 구하고 섬에 정착한 사람의 이야기’와 『삼국유사』의 진성여왕과 거타지 조의 이야기도 이러한 문화적 교류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선행 연구가 있음을 소개하였다. 이들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은 환동해 문화권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지방의 ‘연오랑 세오녀 설화’가 이 문화권에서 지니고 있는 의미를 밝히기 위한 예비 작업이었다.

둘째 한반도의 남부지방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가는 데는 여러 개의 해로가 존재했고, 또 이주 집단들도 상당히 많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누가아라시토 설화’와 ‘아메노히보코 설화’를 고찰함으로써, 이들 두 설화의 주인공인 쓰누가아라시토와 아메노히보코의 이동경로가 한반도 주민들의 일본 이주 경로를 나타내는 것임을 구명하였다.

셋째 ‘연오랑 세오녀 설화’의 고찰을 통해, 포항의 영일만 일대에서 일본의 오키도와 이즈모 일대로 들어가는 문화의 한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의 해명은 이들 두 지역이 문화적인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에 이에 바탕을 둔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주제어: 연오랑 세오녀 설화, 쓰누가아라시토 설화, 아메노히보코 설화, 동해, 처가거주혼, 부가거주혼.

1. 머리말

한국의 동해안과 일본의 서해안 사이에 있는 바다는 그 이름부터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동해(東海)’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¹⁾ 일본에서는 ‘일본해(日本海)’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²⁾ 게다가 동해 한 가운데 있는 독도(獨島)는 지금도 한·일 두 나라에서 제각기 자기 나라의 영토라고 하며 그 영유권을 다투고 있어,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다.³⁾

이와 같은 동해는 베링 해협에서 내려오는 오야시오 한류(親潮寒流)의 지류인 리만 한류가 홋카이도(北海道) 부근에서 갈라져 들어오고, 또 남쪽의 구로시오 난류(黑潮暖流)가 올라와서 서로 만나는 곳이어서 천혜(天惠)의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⁴⁾ 더욱이 이 동해는 고대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이어주는 항로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⁵⁾ 지금은 한국과 북한, 일본, 러시아가 서로 활발하게 교역

-
- 1) 김신, 「동해 표기의 역사적 전개」, 『경영사학』 (16-3), 한국경영사학회, 2001, 한국경영사학회), pp.199-222.
김호동, 「메이지시대 일본의 동해와 두 섬(울릉도, 독도) 명칭 변경 의도에 관한 검토」, 『민족문화논총』43,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2009, pp 535-561.
 - 2) 원래의 명칭은 ‘북해(北海)’였으나,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에 ‘일본해’란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齋藤勘介, 권오엽 공역, 『隱州視聽合記』, 동북아역사재단, 2007, p.33.
芳井研一, 『日本海という呼稱』, 新潟: 新潟日報事業社, 2002, pp.7-63.
 - 3)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적 연구』, 지식산업사, 1996, pp.55-137.
송병기, 『재정판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출판부, 2007, pp.245-307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東京: 古今書院, 1966, pp.194-273.
 - 4) 小林道憲, 『古代日本海文明交流圈』, 東京: 世界思想社, 2006, p.7.
 - 5) 동북아역사재단 편, 『고대 환동해 교류사, 1부 고구려와 왜』, 동북아역사재단, 2010, pp.97-168.
동북아역사재단 편, 『고대 환동해 교류사, 2부 발해와 일본』, 동북아역사재단, 2010, pp.113-192.

을 하는 생명의 바다이기도 하다.⁶⁾ 이와 같은 입지적 조건은 일찍부터 문화 교류의 매개적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동해 중심의 문화권을 설정하여 지난날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문화교류의 한 단면을 고찰하려고 한다.

두루 알다시피 ‘문화권’이란 말은 독일어의 *Kulturreis*, *Kulturkreislehre*란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일정지역에 존재하는 특징적인 문화복합(culture complex)⁷⁾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러한 문화권에는 물질문화와 경제형태, 사회, 종교, 예술 등 문화의 모든 분야가 다 포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문화권은 과거의 어떤 시기에 성립하여,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을 근거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권은 시간적으로 보면 문화층(文化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⁸⁾

이와 같은 문화권의 개념을 도입하여 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문화현상들을 중심으로 ‘환동해 문화권’을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서로 영향관계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문화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요소들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의 남부지방 분포되어 있는 ‘당일우귀(當日于歸)’의 혼속이다. 이것은 먼저 신랑이 처녀 집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지만, 그날 남자는 신부를 데리

6) 근래에 경상북도와 강원도에서 환동해권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도 이 지역의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7) ‘문화복합(文化複合)’이란 어떤 집단의 문화든지 많은 문화 요소(culture elements)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복합체라는 인식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어떤 문화권의 문화 연구는 이 요소의 총체적인 연구이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 문화권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특징이 있는 일련의 문화 요소들을 한 데 모아서 통합하여, 하나의 유형(類型)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문화 복합체라고 말한다.

下中邦彦 編, 『哲學事典』, 東京: 平凡社, 1971, p.1245.

8) 大林太良, 共編, 『文化人類學事典』, 東京: 弘文堂, 1994, p.668.

고 집으로 돌아와서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혼인은 아침에는 처가 거주 형태(妻家居住形態)를 취하는데 비해, 같은 날 저녁에는 부가 거주 형태(夫家居住形態)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은 혼인 형태는 오늘날 전 일본에서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이다. 하지만 규슈(九州)의 북부 지방에서는 “아침 사위에 저녁 며느리(朝嬭に夕嫁)”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더욱이 한국의 ‘당일우귀’ 혼속에는 신부가 시집을 온 지 3일 째 되는 날에 신랑을 데리고 친정(親庭)으로 가는 풍습이 있는데, 북 규슈에도 ‘3일째 귀가(歸家)’라고 하여 신부가 신랑을 동반하고 자기 친가를 방문하는 풍습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이들 두 지방의 혼속은 별도로 발달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문화 속에서 파생된 문화요소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⁹⁾

그러나 일본에서 대표적인 민속학자의 한 사람인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의 혼속에 관한 연구에서는, 오늘날의 ‘부가 거주혼’은 야마토 시대(大和時代)까지 지배적이었던 ‘일시적 처가 거주혼’이 중세에 무가(武家) 계통 아래서 진전되어 일반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⁰⁾ 그렇지만 이처럼 ‘부가 거주혼’의 혼인 형태를 일본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전했다고 보기보다는 한국의 남부 지방과 일본 규슈의 북부 지방에 존재했던 문화권의 공통된 문화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런 의미에서 헤이안 시대(平安時代)에 완성된 『곤자쿠 이야기(今昔物語)』에 실려 있는 ‘가가 지방(加賀國)의 뱀과 지네가 싸우는 섬에 가서 뱀을 구하고 섬에 산 사람의 이야기’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설화는 섬에서 지네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

9) 江守五夫, 「婚姻形態からみた日本海文化の諸特徴」, 『東アジアと日本海文化』, 東京: 小學館, 1984, pp.156-157.

10) 江守五夫, 위의 논문, pp.155-156.

는 뱀을 도와준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와 비슷한 설화가 『삼국유사』의 ‘진성여왕과 거타지(居陔知)>’ 조에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비슷한 이야기가 한국의 남부 지방과 일본의 호쿠리쿠 지방(北陸地方)에 전승되었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 두 지역의 문화적인 관련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¹¹⁾

이렇게 볼 때, ‘환동해 문화권’을 설정하여 동해를 매개로 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가 서로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명하는 작업은 현재와 같이 급속하게 국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 아래서는 서로 간의 이해 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긴요한 작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만약에 ‘환동해 문화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포항 일대에 전해지고 있는 ‘연오랑 세오녀 설화’가 이 문화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구명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이 설화를 통해서 동해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한·일 간의 문화적 교류의 한 단면을 해명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2. 한·일 간의 관련 설화들과 동해 문화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환동해 문화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국과 일본에 전해지는 설화들을 고찰하는 작업은 이들 두 지역의 문화적 관련 양상을 해명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작업을 위해서는 한 유형의 설화만을 고찰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왜냐하면 문화란 것은 독립된 하나의 요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된 양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 전해지는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검토하기에 앞

11) 大林太良, 「日本海文化と朝鮮・沿海州・蝦夷」, 『東アジアと日本海文化』 東京: 小學館, 1984, p.73.

서, 일본 측 기록에 남아 있는 ‘쓰누가아라시토(都怒我阿羅斯等) 설화’와 ‘아메노히보코(天日槍) 설화’부터 먼저 별건하기로 한다.

[자료 1]

미마키노스메로노미코토(御間城天皇: 崇神天皇을 가리킴) 때에 이마에 빨이 난 사람이 한 척의 배를 타고 코시국(越國)의 게히 포구(筍飯浦)에 정박하였다. 그래서 그곳을 쓰누가(角鹿)라고 불렀다. 그 사람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오호(意富) 가라국(加羅國)의 왕자로 이름은 쓰누가아라시토(都怒我阿羅斯等), 또 다른 이름은 우시키아리시찌칸기(于斯岐阿利叱智干岐)라고 한다. 전하여 들기를 일본국에 성황(聖皇)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귀화하였다. 아나토(穴門)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 나라에 이름이 이즈쓰히코(伊都都比古)라는 사람이 있어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나 외에 다른 왕은 없다. 그러니 다른 곳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생김새를 보니, 결코 왕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길을 몰라서 섬들과 포구들을 헤매었다. 북해를 돌아서 이즈모국(出雲國)을 거쳐 이곳에 왔다.”라고 하였다.¹²⁾

이 자료에는 가라국의 왕자인 쓰누가아라시토의 이마에 빨이 나 있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그가 빨 모양의 의장(儀仗)을 했을 가능성은 인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그 이유는 그가 한 나라의 왕자였다고 한다면, 바다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 맞는 모습으로 꾸밀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御間城天皇之世 額有角人 乘一船 泊于越國筍飯浦 故號其處曰角鹿也 問之曰 何國人也 大曰 意富加羅國王之子 名都怒我阿羅斯等 亦名曰 于斯岐阿利叱智干岐 傳聞曰 日本國有聖皇 以歸化之 到于穴門時 其國有人 名伊都都比古 謂臣曰 我則是國王也 除吾復無二王 故勿往他處 然臣究見其爲人必知非王也 卽更還之 不知道路 留連鳴浦 自北海廻之 經出雲國至於此間也。”
井上光貞 共校注, 『日本書紀(上)』, 東京: 岩波書店, 1967, pp.258-259.

이처럼 이상한 모습을 한 쓰누가아라시토가 최초로 도착한 곳은 나가토(長門)의 아나토였다. 아나토는 오늘날 야마구치현(山口縣)의 시모노세키(下關) 부근에 있는 나가토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가 도일한 이 경로는 한·일 간의 중요한 항로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시사해준다.¹³⁾

그러나 이 설화에서는 쓰누가아라시토는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시마네현(島根縣)의 이즈모(出雲)를 돌아서 코시국(越國)¹⁴⁾의 게히 포구에 도착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코시국의 게히 포구는 후쿠이현(福井縣) 쓰루가시(敦賀市) 게히신사(氣比神社) 부근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쓰누가아라시토라는 가락국의 왕자 집단이 현재의 야마구치현으로부터 시마네현을 거쳐 후쿠이현으로 이동하여, 거기에 정착한 것을 형상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헌 설화는 여기에서 결말을 맺고 있으나, 현전하는 자료에서는 이곳으로부터 더 북상하여 이시가와현(石川縣)의 나나오시(七尾市)에까지 그 세력이 확장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곧 이 시에는 구마가부토아라카시히코 신사(久麻加夫都阿良加志比古神社)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아라카시히코 신과 더불어 쓰누가아라시토 신도 함께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 두 신은 다 같이 한국의 왕자(王子)로, 스진 천황(崇神天皇) 대에 게히 포구(箭飯浦)에 상륙하여 이 주변을 평정한 덕택에, 수호신(守護神)으로 모셔지고 있다는 것이다.¹⁵⁾

여기에서 쓰누가아라시토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세력을 넓혀

13) 오늘날도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연락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항로가 한국과 이 지방을 연결하는, 가장 안전한 경로였음을 드러낸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4) 호쿠리쿠(北陸)으로 가는 길 일대를 가리킨다.

15) 小林道憲, 앞의 책, pp.151-152.

나갔다는 것은 한국의 남부 지방과 일본의 서해안 지방이 일찍부터 인적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 국가라는 통치 체제가 만들어져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 자기중심의 논리를 전개하기 시작한, 훨씬 이전의 일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두 지방 사이의 교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로 보아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¹⁶⁾

이에 비해, 신라의 왕자였던 ‘아메노히보코(天日槍) 설화’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경로는 이것과 전혀 다른 길이 존재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자료 2]

옛날에 신라의 왕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아메노히보코(天之日矛)라고 하였다. 이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왔다. 건너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신라에 어떤 늑 하나가 있어, 이름을 아구누마(阿具奴摩)라고 했다. 이 늑 근처에 어떤 신분이 천한 여인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여기에 무지개와 같은 햇빛이 그녀의 음부를 비치었다. 또 신분이 천한, 한 사람이 있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항상 그 여자의 동태를 살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이 낮잠을 자던 때로부터 태기가 있어 출산을 하였는데, 붉은 구슬이었다.

이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천한 남자는 그 구슬을 그녀에게 달라고 하여 받아낸 뒤에, 항상 째 가지고 허리에 차고 있었다. 이 남자는 산골짜기에서 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으므로 밭을 가는 인부들의 음식을 한 마리 소에다 싣고 산골짜기로 들어가다가 그 나라의 왕자인 아메노히보코를 우연히 만났다. 이에 아메노히보코가 그 남자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너는 음식을 소에다 싣고 산골짜기로 들어가느냐? 필히 이 소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지.”라고 하며, 즉시 그 남자를 잡아 옥에 가두어 두려고 했다.

이에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소를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16) 김화경, 『일본의 신화』, 문학과지성사, 2002, pp.169-170.

다만 받은 가는 사람들의 음식을 실어 나를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아메노히보코는 이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남자는 허리에 차고 있던 구슬을 풀어 왕자에게 바쳤다. 그러자 아메노히보코는 그 신분이 천한 남자를 방면하고, 그 구슬을 가지고 와서 마루 곁에다 두었다. 그런데 그 구슬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다. 그리하여 아메노히보코는 그녀와 혼인을 하고 적실(嫡室)의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후에 그녀는 항상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먹게 하였다. 그러나 그 나라 왕자는 거만한 마음이 들어 아내를 나무랐기 때문에, 그녀는 “대체로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여자가 아닙니다. 나의 조국으로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는 재빨리 남몰래 작은 배를 타고 도망쳐 건너와 나니하(難波)에 머물렀다. 그녀가 바로 나니하의 히메코소 신사(比賣碁會神社)에 모셔지고 있는 아카루히메노카미(阿加流比賣神)이다.

아메노히보코는 아내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곧 그 뒤를 따라 건너와 나니하에 도착하려고 하였다. 바로 그 때 해협(海峽)의 신이 이를 막고 나니하에 들어 보내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메노히보코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돌아가 다지마(多遲摩)라는 곳에 정착했다. 그리고는 그곳에 머물면서 다지마노마타오(多遲摩之俣尾)의 딸 사키즈미(前津見)라는 이름의 여인과 혼인하여 낳은 아이를 다지마모로스쿠(多遲摩母呂須玖)라고 했다. 이 사람의 자식은 다지마히네(多遲摩斐泥)이었고, 다지마히네의 자식은 다지마히나라기(多遲摩比那良岐)였으며, 다지마히나라기의 자식은 다지마 모리(多遲摩毛理), 다음이 다지마 히다카(多遲摩比多詞), 다음이 스가히코(清日子)였다. …… 중략 ……

그리고 아메노히보코가 가지고 온 물건 중에는 옥진보(玉津寶)라는 구슬이 두 줄이나 있었다. 또 파도를 일으키는 천, 파도를 가라앉히는 천,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는 천 및 오키즈카카미(奥津鏡), 헤쓰카카미(邊津鏡)라는 거울 두 개도 함께 가지고 왔다. 그가 가지고 온 물건을 모두 합하여 여덟 가지나 된다. 이를 이즈시 신사(伊豆志神社)에서 모시고 있는 야마헤 대신(八前大神)이라고 한다.¹⁷⁾

17) “昔有新羅國王之子 名謂天之日矛。是人參渡來也。所以參渡來者 新羅國有一沼 名謂阿具奴摩。此沼之邊 一賤女晝寢 於是 日耀如虹 指其陰上。亦有一賤夫 思異其狀恒伺其女人之行。故是女人 自其晝寢時妊身 生亦玉。爾其

이 자료는 『고사기』의 오진 천황(應神天皇) 조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일광 감응(日光感應) 모티프와 난생(卵生) 모티프를 가지고 있어, 일찍부터 한·일 신화의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오진 천황은 기원 후 269년에서 309년 사이에 재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설화는 3세기 무렵의 한·일 양국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가 『일본서기』에는 기원 전 29년에서 기원 후 70년까지 재위했다고 하는 스이닌 천황(垂仁天皇) 3년(기원 전 27년) 조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동일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3 세기가 넘는 시대를 달리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들 두 사서가 지니는 사료(史料)로서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해 아마도 정권(大和政權)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서(史書)의 편찬을 시도했던 집권층이 그들의 편익에 따라 구전되던 자료들을 역사적 사실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같은 인물의 이야기가 전혀 연대가 맞지 않는 시대에 수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¹⁸⁾

어쨌든 이 설화에는 아메노히보코가 본국으로 돌아간 자기의 아

所伺賤夫 乞取其玉 恒裹着腰 此人營田於山谷之間 故耕人等之飲食負一牛而 入山谷之中 遇逢其國主之子 天之日矛 爾問其人曰 何汝飲食負牛入山谷 汝必殺食是牛 卽捕其人 將入獄囚 其人答曰 吾非殺牛 唯送田人之食耳 然猶不赦 爾解其腰之玉 幣其國主之子 故赦其賤夫 將來其玉 置於床邊 卽化美麗孃子 仍婚爲嫡妻 爾其孃子 常設種種之珍味 恒食其夫 故其國主之子 心奢詈妻 其女人言 凡吾者 非應爲汝妻之女 將行吾祖之國 卽竊乘小船 逃遁渡來 留于難波 於是 天之日矛 聞其妻遁 乃追渡來 將到難波之間 其渡之神 塞以不入 故更還泊多遲摩國 卽留其國而 娶多遲摩之侯尾之女 名前津見 生子多遲摩母呂須玖 此之子多遲摩斐泥 此之子多遲摩比那良岐 此之子多遲麻毛理 ･･････中略･･････ 故天之日矛持渡來物者 玉津寶云而珠二貫 又振浪比禮 切浪比禮 振風比禮 切風比禮 又與津鏡 邊津鏡 并八種也”
荻原淺男 共校注, 『古事記 上代歌謠』, 東京: 小學館, 1973, pp.262-265.

18) 김화경, 「일본의 아메노히보코 설화 연구」, 『인문연구』52,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7, pp.166-167.

내 아카루히메를 찾아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는 하리마국(播磨國)¹⁹⁾에 도착하였다가 상륙을 하지 못하고, 긴키(近畿) 지방으로 들어가, 우지강(宇治川)을 거쳐서 오미(近江),²⁰⁾ 그리고 일본 서해안의 와카사(若狹)²¹⁾로 나와, 다지마(但馬)²²⁾로 가서 정착하여, 다지마 씨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메노히보코 역시 오늘날까지도 에치젠(越前)²³⁾의 제1궁(宮)으로 숭배되어 온 쓰루가(敦賀) 게히 신궁(氣比神宮)에서 이자사와게노미코토로서 모셔지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쓰누가아라시토가 정착했다고 전해지는 이 쓰루가 지역에는 신라로부터 건너온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구쯔미(狹見)에도 시라기히코(信露貴彦)의 신사(神社)가 있고, 시라기(白木)에도 시라기신사(白城神社)가 있다. 시라기 지역에는, 자기들의 조상은 조선 왕가(王家) 사람으로, 이 지역에 건너와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전승이 있다.²⁴⁾

이렇게 보면, 아메노히보코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은 쓰누가아라시토와 같지마는, 전자가 도일(渡日)한 경로는 후자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락국의 왕자 쓰누가아라시토는 동해를 건너서 일본의 서해안에 상륙하였다가 그 해안을 따라서 북상을 하였다. 이에 반해 아메노히보코는 오늘날의 야마구치현(山口縣)과 후쿠오카현(福岡縣) 사이에 있는 간몽 해협(關門海峽)을 지나 세도 내해(瀬戸内海)로 들어가 오사카

19) 지금의 효고현(兵庫縣) 지역을 말한다.

20) 지금의 시가현(滋賀縣) 일대를 가리킨다.

21) 지금의 후쿠이현(福井縣) 서부 지역을 가리킨다.

22) 지금의 효고현 북부 지방을 가리킨다.

23) 지금의 후쿠이현(북정현) 동북부 지역을 가리킨다.

24) 小林道憲, 앞의 책, pp.154-155.

일본의 지명에서 ‘시라기’로 읽히는 곳은 대개 신라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정도이다.

(大阪)의 난바(難波)에 도착하였으나, 거기에 상륙하지 못하고 우지강을 거슬러 올라가 일본의 서해안으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두 집단의 도일 경로가 달랐던 것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여러 개의 항로가 존재했으며, 그 항로의 선택은 이주민들의 형편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주는 지속적으로 행해졌을 것으로 상정된다. 바로 이러한 이주 경로의 하나가 ‘연오랑 세오녀 설화’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설화는 한·일 문화의 교류 양상을 구명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3. 연오랑 세오녀 설화와 일본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데는 여러 갈래의 해로(海路)가 이용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포항 지방에 전해지는 ‘연오랑 세오녀 설화’에 반영된 해로(海路)를 구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래서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기이편(紀異編)에 전해지는 이 설화의 내용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자료 3]

제8대 아달라왕이 즉위한 4년 정유에 동해 바닷가에는 연오랑과 세오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연오랑이 바다에 나가 해조(海藻)를 따는데, 갑자기 바위 하나(물고기라고 한다.)가 나타나더니 연오랑을 태우고 일본으로 가버렸다. 일본 사람들이 보고 말하기를 “이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세워서 왕으로 삼았다(『일본제기』를 보면 전후에 신라 사람으로 왕이 된 이가 없었다. 그러니 이는 어느 변방 고을의 작은 왕이고 정말로 왕은 아닐 것이다).

세오녀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바닷가에 나가서 찾아보니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이 있었다. 바위 위에 올라갔더니, 그 바

위는 또한 세오녀를 싣고 마치 연오랑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갔다. 그 나라 사람들은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왕에게 사실을 아뢰었다. 이리하여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되었고 그녀를 귀비(貴妃)로 삼았다.

이때에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내려와 있었는데 이제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괴변이 생기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사자를 보내어 두 사람을 찾으니 연오랑이 말하기를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인데 어찌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나의 비(妃)가 짝 고운 비단이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비단을 건네 주었다. 사자가 돌아와서 사실을 보고하고 그의 말대로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 뒤에 해와 달의 정기가 전과 같았다. 이에 그 비단을 창고에 간수하고 국보로 삼으니 그 창고를 귀비고(貴妃庫)라고 한다. 또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을 영일현 또는 도기야(都祈野)라고도 하였다.²⁵⁾

이 설화는 신라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언하면 신라 세력이 일본에 진출하여 지배 계층으로 군림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일찍부터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가네자와 쇼사부로(金澤庄三郎)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에서 일문(逸文)으로 전해지는 『셋쓰 풍토기(攝津風土記)』에 실린 신라에서 건너왔다고 하는 여신(女神)에 얽힌 설화와 이것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양국 사이에 신들의 왕래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희귀하지 않았던 것이

25) “第八 阿達羅王即位四年丁酉 東海濱有延鳥郎細鳥女 夫婦而居。一日延鳥歸海採藻。忽有一巖(一云 一魚) 負歸日本。國人見之曰 此非常人也。乃立爲王(按日本帝記 前後無新羅人爲王者 此乃邊邑小王而非眞王也)。細鳥怪夫不來歸尋之 見夫脫鞋 亦上其巖 巖亦負歸如前。其國人驚訝 奏獻於王 夫婦相會立爲貴妃。是時新羅日月無光 日者奏云 日月之精 降在我國 今去日本 故致斯怪。王遣使求二人。延鳥曰 我到此國 天使然也 今何歸乎。雖然朕之妃有所織細絹 以此祭天可矣。仍賜其絹。使人來奏 依其言而祭之 然後日月如舊 藏其絹於御庫爲國寶。名其庫爲貴妃庫 祭天所名迎日縣 又都祈野。”

최남선 편, 『신증 삼국유사』, 민중서관, 1946, p.49.

다.”²⁶⁾라는 지적을 하였다.

그러나 문헌사학(文獻史學)에서 철저한 실증주의적 입장을 취했던 던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는 이 설화의 사실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연오랑 세오녀 이야기는) 영일현의 지명설화로 일(日)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일본에도 부회하였을 것이다. 영일현의 이름이 고려조에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의 만들어진 시대도 거의 알 수 있다. (아메노)히보코의 이야기와 조금 닮은 데가 있지만 전체에서 볼 때에 지나 사상에서 나온 것 같고, 물론 아메노히보코 설화와는 하등의 인연도 없다.²⁷⁾

이러한 쓰다의 주장은 한국의 주제성을 부정하려고 하였던 일제 어용학자들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설화란 것을 거기에 내재된 어떤 사실로 파악하는 데는 강한 의문을 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그는 영일현의 지명이 고려 시대부터 사용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설화가 반영하는 한·일 간의 관계를 부정하고, 오직 중국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추출했을 것으로 상정된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는 달리, 내선일체 운동에 앞장섰던 다나카 가오루(田中薰)는 『연오 세오 고(延烏細烏考)』에서 이 연오랑 세오녀 설화가 한국의 동해안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오키도(隱岐島)의 지부리(知夫里)로 건너갔던 주민의 이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연오 세오는 신라의 동해 바닷가로부터 일본의 어느 지역에 이주했을까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신라 강역(疆域)의 경계는 옛 전기가 같지 않다. 두우(杜佑)의 『통전(通典)』에는 ‘그 선조는

26) 金澤庄三郎, 『日鮮同祖論』, 東京: 成甲書房, 1978, p.44.

27) 津田左右吉, 『古事記及日本書紀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1924, pp.170-171.

본시 진한(辰韓) 중족인데, 그 나라가 백제·고구려의 동남쪽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임하였다.’하고, 유구(劉向)의 『당서(唐書)』에는 동남쪽이 모두 바다로 한정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신라의 동해(東海)는 일본해(日本海)이고 남해는 대마도 해협이기 때문에, 연오 세오가 신라의 동해 바닷가에서 일본으로 향했다고 한다면, 첫째로 예상되는 상륙지는 오키 지방이다. 영일만과 오키의 도젠(島前) 치부도(知夫島)와는 다 같이 북위 약 36도, 동 만(灣)의 남숙포(南粟浦, 울산 동북)는 약 35도 반에 있으며 (영일)만과 (오키)도와외의 거리는 약 200해리이므로 영일만(포항) 또는 속포(감포(甘浦))에서 동쪽으로 향한다면 대마 난류(對馬暖流)를 타고 한 길로 용이하게 오키의 치부도에 도착할 수가 있다.²⁸⁾

이와 같은 추정을 하면서, 그는 이 지부리의 지명을 한국에서 찾아내어 아래와 같이 주민들의 이동을 증명하고 있다.

이 ‘치부(知夫)는 엔기식(延喜式) 군명(郡名)의 고훈(古訓)에는 지부리(知夫里)라고 하였고, 도쿠가와 시대(德川時代)의 향장(鄉長)에도 ‘知夫里’라고 명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치부(知夫)는 지부리(知夫里)의 끝 음절이 떨어져 나간 약음(略音)이란 것은 의심할 수 없다. 한편 신라 울산의 서쪽에 있는 ‘언양현(彦陽縣)’은 신라시대에는 현양현(獻陽縣)이라고 불리고 있었는데,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거지화(居知火, chipul)’²⁹⁾라고 하였고, 『경상도지리지』에도 ‘언양현은 옛날에 거지화현(居智火縣, kö-chi-pul)이었다.’고 하여, ‘지화’의 명칭에 나오고 있다. 어미의 ‘화(火)’는 신라의 지명에 흔히 보이고 있는 ‘부리(夫里: pöl, 촌락의 뜻)’의 음차(音差)로, 거지화(居智火)의 거(居, kö)는 ‘거서간(居西干)의 ‘거’와 같이 크다는 의미이다. 오키(隱岐)의 지부리(知夫里)가 신라의 지부리와 서로 일치하는 것은 양자 사이에 우연 이상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아마 신라의 지부리는 연오 세오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연오가 바다를 건너서 도착하여 첫걸음을 내디

28) 中田薫, 『古代日韓交渉史斷片考』, 東京: 創文社, 1956, p.50.

29) 나카다 가오루는 이 ‘거지화’를 ‘본지화(本知火)’라고 옮겼으나, 이것은 ‘거지화’의 잘못된 인용이었다는 것을 밝혀둔다.

김부식,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하, 을유문화사, 1983, p.183.

던 오키의 항구(港口)에 그 마을 이름을 옮겼을 것이다.³⁰

이러한 나카다의 견해는 신라 세력의 일본 이주를 증명하는 자료로 이 설화를 이용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가미가이도 켄이찌(上垣外憲)는 쓰누가아리시토(都怒我阿羅斯等) 설화에 나오는 이즈쓰히코(伊都都比古)를 연오랑으로 간주하면서, 신라의 이서국(伊西國)에서 건너가 이 일대에 세웠던 이즈쓰히코의 왕조는 야마토(大和)와 호쿠리쿠(北陸), 세도 내해(瀬戸内海)의 세력들과 대립하고 있었다고 보았다.³¹ 그리고 이 이즈쓰히코의 세력은 신라와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이때에 신라의 여자가 그 왕가에 시집을 가서 왕비가 되었다고 하였다.³²

이 일대가 한국의 남해안과 일본의 야마토 지방을 왕래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일찍부터 한국의 발달된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던 곳이었다는 것은 쉽게 인정이 된다. 특히 이 지방 문화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이 신라 문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에 신라 계통의 집단이 소국(小國)을 세웠을 것이라는 그의 견해는 상당한 타당성을 가진다. 하지만 이즈쓰히코라는 사람의 이름이 경상북도 청도(淸道) 지방에 존재했었던 이소국(伊蘇國, 伊西國이라고도 했다.)과 그 발음이 유사하다고 하여, 그의 출자(出自)를 이서국에서 찾는 것³³은 너무나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아닐까 한다.

30) 中田薫, 앞의 책, p.51.

31) 가미가이도는 이 자료에 등장하는 이즈쓰히코와 스사노오노미코토(須佐之男命)의 아들 이타게루(五十猛), 그리고 주아이 천황(仲哀天皇)조에 나오는 이토데(五十迹)를 원래 같은 음이었을 것으로 보면서, 이 이름(神)이든가 혹은 왕명(王名)이든가에 의해 대표되는 세력은 시모노세키를 중심으로 하여 북큐우슈우(北九州)로부터 이즈모(出雲)까지 제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上垣外憲一, 『天孫降臨の道』, 東京: 福武書店, 1990, p.109.

32) 上垣外憲一, 위의 책, pp.125-126.

33) 가미가이도 켄이찌는, ‘이즈쓰히코(伊都都比古)’의 히코는 경칭(敬稱)이고,

그리고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가야의 왕자 쓰누가아라시도 설화와 연계시키는 것도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들이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전자는 동해안의 일반 어민(漁民)이었고, 후자는 왕자였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연계시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무리가 뒤따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한국의 학자들은 이 설화가 단순히 신라 집단의 일본 진출이라고 하기보다는 신라에서 건너간 집단이 일본의 지배 계층으로 군림했다고는 이야기의 문맥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에 주목한 이병도(李丙巖)는 이 설화를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아메노히보코(天日槍) 설화와 연계시켜 아래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

天日槍 전설은 『삼국유사』(권1)에 보이는 연오랑(夫) 세오녀(婦)의 설화를 연상케 하거니와, 단 후자는 전자와 반대로 부(夫) 연오가 먼저 일본에 건너가 왕 노릇을 하고 다음에 처 세오가 도해(渡海)하였다 한다. 연오 세오가 일본으로 간 후에는 신라의 일월이 빛을 잃었다는 설화와 천일창이란 이름과의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것도 생각할 문제이다.³⁴⁾

이러한 이병도의 지적은 아메노히보코가 아메노히, 곧 하늘에 있는 해를 의미하는 천일(天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을 하여, 두 설화를 연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아메노히보코는 신라의 왕자였는데 반해, 연오랑은 바닷가에서 해조류(海藻類)를 채취하면서 살아가던 어민이었다는 차이가 있어, 이들의 관련이 정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쯔’는 ‘의’에 해당하므로, 이쯔(伊都)=이서(伊西), Itsu=Iso와 음이 너무도가깝다는 데 근거를 두고 이런 추정을 하였다.

上垣外憲一, 앞의 책, p.114.

34) 이병도, 『한국사(고대편)』, 을유문화사, 1956, p.323.

자아내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 이홍직(李弘植)은 이 설화에 등장하는 연오랑을 스사노오노미코토(素殘烏尊, 須佐之男命)와 연계시키기도 하였다.

진한 지방에서 동해를 건너서 일본의 일부 지방의 지배자가 된 설화는 우리나라 고전에도 남아 있다. 즉 『삼국유사』 기이편(紀異編)에 나타나고 있는 연오랑·세오녀의 설화가 그것이다. …… 중략 …… 이 전설은 매우 재미있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태고시대에 정말 있을 수 있는 역사를 반영한 전설로 볼 것이며, 연오랑이야말로 일본 전설의 스사노오노미코토(素殘鳴命)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³⁵⁾

이와 같은 이홍직의 주장에서는 연오랑을 아메노히보코가 아니라, 스사노오노미코토를 연상하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제시한 이병도의 견해와는 구별된다.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스사노오노미코토는 이즈모계 신화(出雲界神話)의 주신(主神)으로, 다카마노하라(高天原)에서 신라의 소시모리(曾尸茂梨)로 내려왔다가 일본의 이즈모 지방으로 건너간 것으로 되어 있다.³⁶⁾ 이러한 스사노오노미코토가 연오랑과 관련을 가진다고 한 것은 두 존재가 다 같이 신라에서 도일하여 일본의 지배 계층이 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장덕순(張德順)은 이 설화와 『고사기(古事記)』 오진기(應神紀)에 전해지는 아메노히보코 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한 다음에, “유사(遺事)에 나오는 연오랑의 아내 세오녀와 『고사기』에 나오는 아메노히(보)코의 아내 아카다마(赤玉)가 한결같이 태양신이며, 이들이 도일하였다는 설화는 응당 일본의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御神)와 관련지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고대 한·일 양국의 상호관계를 생각할 때 실로 흥미 있는 과제라고 생

35) 이홍직, 『한국 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1971, pp.72-73.

36) 井上光貞 共校注, 앞의 책, pp.126-127.

각한다.”³⁷⁾라고 하여, 이 설화에 등장하는 세오녀와 ‘아메노히보코 설화’에 등장하는 아카다마, 그리고 다카마노하라계 신화(高天原界神話)의 주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다 같이 태양과 관련을 가진 여성들이란 공통점을 중시하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 한국에서 이 설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소재영(蘇在榮)은 「연오 세오 설화고(延鳥細鳥說話攷)」라는 논문을 통해, “알타이 이동 민족(移動民族) 원시문화의 상징적 일원신화(日月神話) 즉 연오 세오의 근원은 우리 민족이 일본 령(日本領)에 개척하였던 고대 우리의 식민지 내지 소분국(小分國)에 옮겨가 통치자가 되고 또 내왕한 사실을 중국의 고대 양중오(陽中鳥) 일식(日蝕)의 동점 설화(東漸說話)에 붙여 역사적 이동 현상을 보인 보기일 것이다.”³⁸⁾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의 이런 주장은 일본 학자들의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이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한 자료로 이 설화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인다면, 한국 동해안 일대, 특히 신라를 중심으로 하는 영일 중심의 문화와 일본의 이즈모 지방 문화가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당시의 황실이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집단들의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고사기』나 『일본서기』의 편찬 과정에서 이 지방 일대에 전승되던 신화나 설화들 가운데에는 기록되지 않는 것들도 있었고, 또 기록된 자료들도 있었을 것이다.³⁹⁾ 그리고 이 경우에도 모든 자료가 원형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악했던 왕권의 합리화를 위해서 구미에 맞게 왜곡되거나 변형·변질되지

37) 장덕순, 『한국 설화문학 연구』, 서울대출판부, 1970, p.171.

38) 소재영, 「연오 세오 설화고」, 『국어국문학』36, 국어국문학회, 1967, p.32.

39) 이것은 『이즈모풍토기(出雲風土記)』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보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면 ‘나라 끌어당기기 설화’는 다카마노하라계 신화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자료들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신라와의 관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고찰을 통해서 한국의 동해안으로부터 일본으로 건너가는 문화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입증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동해안 일대에 구전되고 있는,⁴⁰⁾ 이 설화의 해석을 위해서는 자료 3의 밑줄을 그은 부분에서 일연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일본제기(日本帝記)』에 신라 사람으로 왕이 된 이가 없었다고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규슈(九州)로 진출하였다가 뒤에 야마토 조정을 구성하여 일본의 국가 형성에 주체가 되었던 황실 중심의 세력 집단이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폄하(貶下)하였던 것이 이즈모에 관한 기록이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이 설화가 신라와 일본의 이즈모 지방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런 상정이 허용된다면, 전호천(全浩天)의 견해는 매우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기재되어 있는 연오랑 세오녀 설화는 신라의 사람들이 이즈모, 호키(伯耆), 다지마(但馬), 단고(丹後) 등의 지역에 이주하여, 거기에 왕권·왕국을 구축하였던 것, 연오랑이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 신라의 옛날 지명에 근(斤; 근), 오지(鳥支; 오키)가 있다. 한국어에서 ‘근’은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근오키(斤鳥支)는 커다란 오키(신라의 영일현)로, 지금의 경상북도 포항(浦項)이다. 이 큰 오키로부터 온 사람들이 오키국(隱岐國)의 ‘오키’가 되었다. 또 오키의 지부리섬(知夫里島)의 지부리는 신라의 옛 지명 지불(知火)에서 유래하고 있다. 한국어의 쥐불은 동시에 화전(火田)을 의미한다. 오키의 야키비(燒火) 신앙과 신사(神社), 지명은 한국과 오

40) 崔仁鶴, 『韓國昔話の研究』, 東京: 弘文堂, 1976, p.412.

키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오키(隱岐)는 한국에서 이즈모로 가는 발판이었다.⁴¹⁾라고 하는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으로부터 신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던 하나의 항로, 곧 영일만에서 이즈모(出雲)와 돛토리(鳥取) 일대로 도일하던 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설화는 신라에서 일본 열도로 진출한 집단들이 존재하였고, 그들은 이 항로를 이용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4. 맺음말

이제까지 연오랑과 세오녀에 얽힌 설화가 환동해 문화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가름하고자 한다.

첫째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한국의 동해안과 일본의 서해안 일대의 문화가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는 것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동해 문화권을 설정해도 좋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추정을 하면서 한국의 남부지방과 일본 규슈(九州)의 북부지방에 존재하는 ‘당일우귀(當日于歸)’의 혼속을 예로 들었다. 일본에서는 아마도 시대(大和時代)에 일시적인 처가 거주혼의 형태를 취했다가, 무가 시대(武家時代)에 부가 거주혼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일본 자체 내에서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처럼 일본 자체 내에서의 진화로 설명하기보다는 한국의 남부지방과 같은 문화를 가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41) 全浩天, 『朝鮮からみた古代日本』, 東京: 未來社, 1989, pp.137-138.

것이 타당성을 가질 것이라는 전제를 세웠다. 이런 전제를 세우는 경우, 일본의 호쿠리쿠 지방(北陸地方)에서 문헌에 정착된 ‘가가국의 뱀과 지네가 싸우는 섬에 간 사람, 뱀을 구하고 섬에 정착한 이야기’가 『삼국유사』의 ‘진성여왕과 거타지(거타지)’ 조에 전해지는 것과 같은 계통의 설화이어서, 이들 두 지역이 같은 문화권에 속한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선행 연구 성과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은 환동해 문화권(環東海文化圈)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 지방의 ‘연오랑 세오녀 설화’가 이 문화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예비 작업이었다.

둘째 한반도의 남부 지방으로부터 일본열도로 건너가는 데는 여러 개의 항로가 있었고, 또 그 이주 집단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누가아라시토 설화’와 ‘아메노히보코 설화’를 살펴보았다. 이들 두 설화에서 그 주인공인 쓰누가아라시토와 아메노히보코의 이동 경로는 한반도 주민들의 일본 이주 경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셋째 ‘연오랑 세오녀 설화’의 고찰을 통해, 포항의 영일만 일대에서 일본의 오키도와 이즈모 일대로 들어가는 문화의 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런 사실의 구명은 이들 두 지역이 문화적으로 많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와 이에 바탕을 둔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참고문헌

김신, 「동해 표기의 역사적 전개」, 『경영사학』16-3, 한국경영사학회, 2001.

- 김호동, 「메이지시대 일본의 동해와 두 섬(울릉도, 독도) 명칭 변경 의도에 관한 고찰」, 『민족문화논총』43,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9.
- 김화경, 『일본의 신화』, 문학과지성사, 2002.
- 소재영, 「연오 세오 설화고」, 『국어국문학』36, 국어국문학회, 1967.
- 송병기, 『재정판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출판부, 2007.
- 신용하, 『독도의 민족 영토사적 연구』, 지식산업사, 1996.
- 이병도, 『한국사(고대편)』, 을유문화사, 1956.
- 이흥직, 『한국 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1971.
- 장덕순, 「한국 야래자전설과 본 三輪山전설의 비교연구」, 『한국문화』3, 서울대한국문화연구소, 1982.
- 최남선 편, 『신증 삼국유사』, 민중서관, 1946.
- 江守五夫, 「婚姻形態からみた日本海文化の諸特徴」, 『東アジアと日本海文化』, 東京: 小學館, 1984.
- 金澤庄三郎, 『日鮮同祖論』, 東京: 成甲書房, 1978.
- 大林太良, 『日本海文化と朝鮮・沿海州・蝦夷』, 『東アジアと日本海文化』, 東京: 小學館, 1984.
- _____ 共編, 『文化人類學事典』, 東京: 弘文堂, 1994.
- 芳井研一, 『日本海という呼稱』, 新潟: 新潟日報事業社, 2002.
- 上垣外憲一, 『天孫降臨の道』, 東京: 福武書店, 1990.
- 小林道憲, 『古代日本海文明交流圏』, 東京: 世界思想社, 2006.
- 荻原淺男 共校注, 『古事記 上代歌謠』, 東京: 小學館, 1973.
- 全浩天, 『朝鮮からみた古代日本』, 東京, 未來社, 1989.
- 井上光雄 共校注, 『日本書紀(上)』, 東京: 岩波書店, 1967.
- 中田薫, 『古代日韓交渉史斷片考』, 東京: 創文社, 1956.
- 津田左右吉, 『古事記及日本書紀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1924.
-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東京: 古今書院, 1966.
- 崔仁鶴, 『韓國昔話の研究』, 東京: 弘文堂, 1976.
- 下中邦彦 編, 『哲學事典』, 東京: 平凡社, 1971.

Setting East Sea Rim Culture Bloc and Narrative of Yeon-o-rang, and Saeo-nyeo

Kim, Hwa-Kyung

This paper pursues to review an aspect of old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by setting a culture bloc around East Sea area between Korean east shore and Japanese west shore. To achieve the aim, the paper reviewed mainly about the narratives of 'Yeon-o-rang Seo-nyeo' around Pohang region in Korea, 'Narratives of Ztunukarashito(都怒我阿羅斯等)' and 'Narratives of Amenohiboko(天日槍)' in Japan as well. The summary of the study is as follows.

The study mentioned a common folk marriage custom as instance of 'Bride return to grooms' on the day of marriage at brides'(當日于歸)' in southern Korea and Kyushu Japan area to set up a East Sea Rim Culture Bloc. In Japan, this custom was regarded as a changed system of the Military Age(武家時代) which established a Virilocal Marriage(夫家居住婚) from the temporary Uxorilocal Marriage(妻家居住婚) during Yamato Era(大和時代).

However, author accepted an existing theory of common marriage culture because of same cultural area between Kyushu Japan and southern Korea region. Author's reason of this viewpoint stems from the historical cultural exchange which tells about the proof by the narratives of 'A story of Gaga region about a person who went the island where a snake and a centipede fight, and a person who settled in the island where he saved a snake' in Japanese Hokuriku region(北陸地方) and story of 'Queen Jinseong(眞聖) and Geotaji(居陀知)' in Korean Smakuk-Yusa(三國遺事: Descended History of Three Kingdom) cultural literature.

First, this examination about the existing literature is a preliminary study

which aims to set up the East Sea Rim Culture Bloc if the ‘Narrative of Yeon-o-rang and Seo-nyeo’ in Pohang region has a meaning for this culture bloc.

Second, this study defined a passing route of Korean movement to Japan by the heroes of the two narratives in ‘Tsunuga Aratoshi’ and ‘Amenohiboko’ in Japan which prove many sea lanes to across the sea from Korean peninsular to Japanese islands and many groups as well.

Third, this paper defined a cultural flow from Yeongil bay area to across to Oki island(隱岐島) and Izumo(出雲) Japan by ‘Narrative of Yeon-o-rang Seo-nyeo’. As these narratives reflect the common cultural homogeneity the two regions, it is recommended that further studies would enhance meaningful cultural exchange between two countries.

Key word: Narrative of Yeon-o-rang and Seo-nyeo, Narrative of Tsunuga Aratoshi. Narrative of Amenohiboko. East Sea. Cultural exchange. Uxorilocal Marriage(妻家居住婚). Virilocal Marriage(夫家居住婚)

김화경

소속: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 논문은	2011년 7월 6일	투고하여
	2011년 8월 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8월 31일	간행함